

러시아어 인상술어에 대한 통사적 고찰: 양상조동사(modals)를 중심으로

김형섭
한림대학교

I. 서론

러시아어의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ies)는 전통적 관점에서 본다면 어휘 의미와 논리적 차이에 따라 가능성(possibility), 예측(prediction), 필연성(necessity) 등을 나타내는 인식적 양상(epistemic modality)과 허락(permission), 의지(volition), 의무(obligation) 등을 나타내는 의무적 양상(root/ deontic modality)으로 크게 양분화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분법적 분류는 러시아어를 포함한 슬라브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범언어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Palmer 2001, Portner 2009). 인식적 양상과 의무적 양상의 구분은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비교적 일관된 견해를 얻고 있으나, 의무적 양상의 하위구조는 아직도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하고 있다.¹⁾ 이러한 양상조동사들은 의미적 차이뿐만 아니라, 통사적 구조에 있어서도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인정되고 있다. 그 한 예로, Ross(1969)는 인식적 양상조동사는 뒤따르는 보충어인 부정형(infinitive) 동사에만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하고, 의무적 양상조동사는 내부논항인 부정형 동사와 외부논항인 주어자리에 모두 의미역을 부여하는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능동자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동사만이 목적어에 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르지오의 일반화(Burzio's Generalization) 가설에 근거하여 설명하자면, 의무적 양상은 타동사의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Ross 1969, Burzio 1986). 이후의 연

1) 전통적 관점에서의 양상은 인식적 양상(epistemic modality)과 의무적 양상(deontic/root modality)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Brennan(1993)은 root modality를 i) deontic, ii) dynamic, iii) quantificational로 세분화하였고, Portner(2009)는 양상을 i)epistemic, ii) priority, and iii) dynamic의 세 가지로 구분을 하였다.

구에서도 인식적 양상조동사들은 주어인 외부논항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주장되었으며, 반면에 의무적 양상조동사들은 주어의 의미역을 부여받는다고 주장되었다((Zubizarreta 1982, Roberts 1985). Chomsky(1981:36)의 의미역준거(Theta-Criterion)에 따르면 각각의 논항은 하나의 의미역만을 부여받으므로 인식적 양상조동사와 의무적 양상조동사의 통사구조는 다르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근거로 인하여, 인식적 양상조동사들은 통제구조(control)를 가지고 있으며, 반면에 인식적 양상조동사들은 인상구조(raising)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되어오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러시아어의 양상 조동사에 대하여 좀 더 심화된 통사적 분석을 시도하려 한다. 우선 언어 보편적 입장에서 언어학적 분석과 러시아어 양상조동사의 통사적 비교분석을 통해 러시아어 양상조동사의 구조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다. Chomsky(1981)의 GB이론에 입각하여 양상조동사의 구조는 인상구조인지 통제구조인지를 밝히고, Burzio의 일반화(BG)와 Chomsky의 의미역준거(Theta-Criterion)와 관련된 주어와 주어성(subjecthood)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러시아어의 양상조동사는 T와 V에 의해 두 개의 의미역 할당을 받는 통제의 구조가 아닌, 하위투사의 동사인 V, 즉, 부정형(infinitive) 동사에 의해 의미역 할당을 받아 T의 지정어 자리로 인상이동을 하는 인상구조라는 것을 입증할 것이다. 그 논리적 근거로는 수동태형성이 불가능한 양상조동사는 항상 동사구(VP) 밖의 영역(scope)에서 사용되지만, 최초 결합 위치와 이동 위치에 따른 문맥상 해석의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은 활동체(animate) 주어만이 통제구문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비추어 볼 때, 주어의 속성이 활동체-비활동체의 구분 없이 사용되는 양상조동사는 인상술어라는 간접증명이 되는 것이다. 또한, 영어에서는 허사(expletive) 삽입이 가능한 구문이 인상구문이라는 언어 보편적 현상을 고려하여, 러시아어의 비인칭(impersonal) 구문과의 비교를 통하여 양상조동사를 분석할 것이다.

본고의 구성은 II장에서 통제구문과 인상구문의 구조, 그리고 양상조동사의 통사적 구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고 러시아어어의 언어 보편적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III장에서는 II장에서 설명한 이론을 바탕으로 러시아어의 자료를 분석할 것이다. III.1에서는 러시아어 양상조동사의 통사적 구조에 대하여 조사하여 범언어적 요소와 러시아어 요소를 비

교분석할 것이다. III.2에서는 수동태와 관련된 양상조동사의 쓰임과 통사적 구조를 살펴볼 것이며, 사상(diathesis)에 관하여도 고려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III.3은 영어에서 허사인 there-삽입이나 비인칭 주어 it을 사용하는 구문과 대응되는 러시아어의 무인칭구문 (impersonal constructions)을 양상조동사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할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통제(control)와 인상(raising)

통제와 인상 등의 통사적 운용(syntactic operation)은 Chomsky(1957, 2002)의 변형생성문법을 시작으로 파생적(derivational) 접근방식에 기인하여 설명하고 있다. 파생적 접근방식이란 하나의 문장구조가 어떠한 규칙에 적용이 되면, 변형과 생성의 메카니즘을 통해서 새롭게 파생된 또 다른 문장이 생성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설을 가진 방식이라 할 수 있다. 심층구조(deep structure)와 표층구조(surface structure)의 이해는 이러한 맥락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다.²⁾

인상구문은 내포문(embedded sentence)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자리로 이동하는 구조를 가진 구문이며, 이러한 구문에 쓰인 술어를 인상술어(raising predicate)라 한다. 아래의 예문들은 내포문의 주어나 주어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유도부사 there를 주절의 공(empty)주어 위치로 이동시킴으로써 얻어진 새로운 통사적 파생이라 할 수 있다.

2) Jackendoff. R. (1997)은 다음과 같은 이론들은 비파생적 접근방식의 이론이라 간주하고 있다: 어휘기능문법(Lexical Functional Grammar), 일반화구구조문법(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중심어기반구구조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구문문법(Construction Grammar),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자율어휘문법(Autolexical Syntax), 수형접합문법(Tree-Adjoining Grammar), 범주문법(Categorical Grammar) 등.

- (1) a. It seems that *John* is an honest man.
 b. *John* seems to be an honest man.
- (2) a. It seems that *there* is an ogre in the forest.
 b. *There* seems to be an ogre in the forest.
- (3) a. *e* seems [John] to be an honest man.
 b. *e* seems [there] to be an ogre in the forest.

지금까지 살펴 본 인상구문과는 달리, 통제구문은 보어절의 주어가 생략되어 사용된다는 점에서 인상구문과 유사점을 갖지만, 어떠한 인상이동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인상구문과 차이점을 보인다. 통제의 문제는 보어절의 생략된 주어 PRO를 통제할 수 있는 명사구가 상위 투사구에 두 개 존재할 경우, 그 중의 한 명사, 즉 통제자(controller)에게 통제를 받게 되는데, 통제자의 PRO에 대한 통제조건은 매우 중요하다. 통제현상은 몇 가지 관점에 따라 하위분류가 가능한데, 통제관계의 필연성에 의해 의무적 통제(obligatory control)와 수의적 통제(optional control)로 구분할 수 있다. 의무적 통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통제는 수의적 통제라 한다.

(4) 의무적 통제조건

- i) 반드시 통제자(controller)를 필요로 한다.
- ii) 통제자는 PRO를 주어로 하는 절의 바로 위의 절의 주어 또는 목적어가 아니면 안된다.
- iii) PRO를 어휘적(lexical) NP로 바꾸어 놓을 수 없다.

(강명윤 1998:186)

의무적 통제를 하는 통제동사들 가운데, 주어가 통제자가 되는 통제를 주어통제(subject control), 목적어가 통제자가 되는 것을 목적어통제(object control)라 한다. 아래 예문의 통제동사 promise는 주어가 PRO를 통제하는 주어통제동사이고, 동사 persuade는 목적어가 PRO를 통제하는 목적어통제동사임을 알 수 있다.

- (5) a. Susan_i promised Alex [PRO_i to come to the party].
 b. Susan persuaded Alex_i [PRO_i to come to the party].

이러한 의무적 통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통제를 비의무적 통제, 또는 수의적 통제라 한다. 수의적 통제의 예는 다음과 같다.

- (6) a. It is unclear [what PRO to do].
 b. John_i thought that I said that [it was impossible [PRO_i to kill himself].
 c. [PRO/For him to leave] would be nice. (강명윤 1998:187)

위의 예문에서 (6a)는 통제자인 선행사가 부재하여 의무적 통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며, (6b)는 PRO를 통제할 상위투사의 선행사가 너무 멀어 통제가 위배되는 경우이다. 세 번째로 (6c)의 경우는 PRO가 어휘적 명사구 (lexical NP)로 대치되었기 때문에 수의적 통제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인상은 의미역 준거에 의해 부여된 하나의 의미역이 이동을 통하여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내는 통사적 파생인 반면, 통제는 통제자와 PRO와의 지배와 결속에 의한 상호관계라 할 수 있다. 결국 통사적 시각으로 이 두 구문을 살펴보면, 통제구문은 주절의 동사와 부정형의 내포문 동사에 의해 부여되는 의미역이 2개이며, 인상구문은 주절의 동사가 의미역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내포문의 동사에 의해 부여받은 의미역 한 개만이 존재하여, 주절의 외부논항 자리로 인상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의미역 준거에 의한 차이점은 아래와 같다.

(7) 인상

$S + V + [_{CP} \text{ that } [_{IP} (S) + V]]$

(8) 통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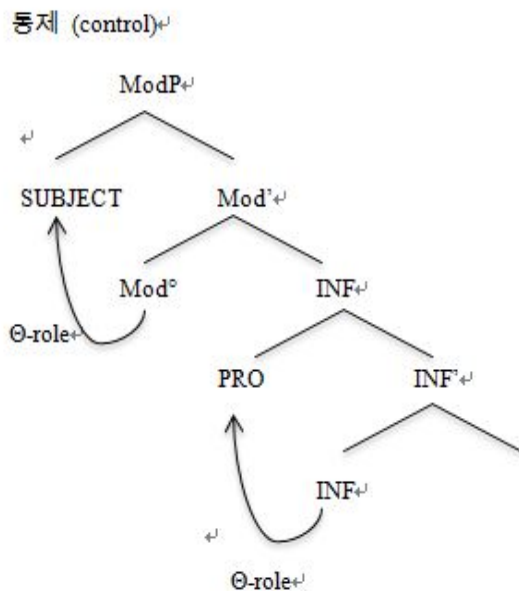
- a. 주어통제: $S_i + V + (O) + [_{CP} [_{IP} \text{ PRO}_i [V_{INF}]]]$
 b. 목적어통제: $S + V + O_i + [_{CP} [_{IP} \text{ PRO}_i [V_{INF}]]]$

하지만 이러한 인상과 통제의 차이점은 특정 단어들에서 그 구분이 어렵다. 소위 *begin, start, continue, have*와 같은 동사들은 인상과 통제의 구조적 차이점을 판별하기 어렵다. Perlmutter(1970)는 인상동사와 통제동사의 구분을 결정짓는 것은 주어의 활성화(subject animacy)이라 언급하였다(cf. Becker 2005, 2007). 이 밖에도, 다음의 예문에서처럼, 허사인 *there*가 목적어 자리에서 생성될 수 있으면, 그것은 인상구문이고, 목적어 자리에 허사 *there*가 올 수 없으면 통제구문이라 할 수 있다. (Lasnik and Saito 1991:8-9, Borsley 1996:127, Culicover 1997:1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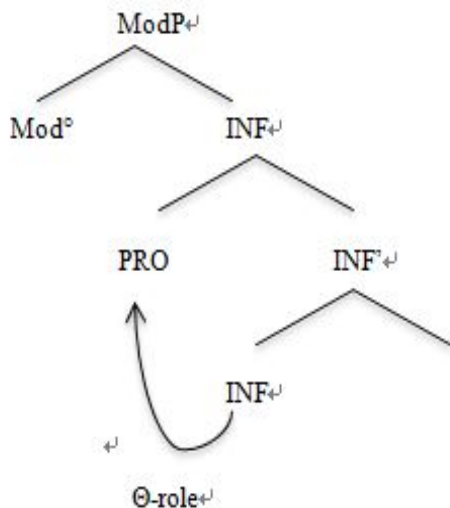
- (9) a. $\checkmark$ *It* began to rain.
 b. $\checkmark$ *It* starts to rain.
 c. $\checkmark$ *It* continues to rain.
 d. $\checkmark$ *There* has to be a solution.
 e. $\checkmark$ *There* continues to live a tiger in the forest.
- (10) a. $\checkmark$ *We* want *there* to be a revision.
 b. **We* helped *there* (to) be a revision.

지금까지 인상구문과 통제구문의 차이점을 살펴보았듯이, 양상조동사의 통사적 특성은 인식적 양상과 의무적 양상의 의미적 차이에 의해 인상구조이거나 통제구조로 차별화되어 파악되었다. 예를 들자면, Ross(1969)는 의무적 양상조동사(deontic modals)를 부정형 동사와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하는 타동사로 간주하고, 인식적 양상조동사를 부정형 동사에만 의미역을 부여하는 자동사로 간주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Roberts(1985)는 인식적 양상 조동사는 주어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양상조동사의 의미에 따라 통사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고 할 수 있다. 통제구문과 인상구문의 통사적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11)



(12) 인상 (raising)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양상조동사의 통사적 구조는 그 의미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는 Burzio의 일반화(Burzio's Generalization, BG)의 시각에서는 타동사, 즉 내부논항에 격부여를 하기위한 필수조건은 외부논항의 의미역 부여와 관련이 있다는 것과 연장 선상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13) 부르지오의 일반화 (Burzio's Generalization)

목적어를 가진 동사는 주어에 의미역을 부여할 경우에만 목적어에 격을 할당할 수 있다.

(A verb (with an object) Case-marks its object if and only if it theta-marks its subject) (Burzio 1986:178)

하지만, 본고에서는 이러한 시각에서 벗어나, 러시아어의 양상조동사는 그 의미의 차이에 관계없이 통사적으로 인상구조의 특성을 가지며, 결코 통제구조가 아니라는 것을 밝힐 것이다. 통제구조는 두 개 이상의 주어가 PRO를 누가 지배하느냐의 문제를 다룬 것이고, 인상구조는 내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인상이동 되어 사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룬 것이다. 본고에서는 양상조동사의 의미적 특성보다는 통사적 특성들 중 인상이동과 관련된 특성을 다루어 언어보편적 현상으로 양상조동사는 통제가 아닌 인상구조라는 것을 주장하려한다.

III. 러시아어 양상조동사(Russian Modal Auxiliaries)³⁾

1. 러시아어 양상조동사의 통사적 구조

현대 표준러시아어에 사용되는 양상조동사들은 대략 다음과 같은 조동사적 기능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조동사들은 여격의 의미상 주어와 함께 사용되고 부정형(infinitive) 동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 하지만 소수의 양상조동사들, 가령, *должен(должна/должно/должны)*과 *мочь*는 주격의 주어와 함께 사용된다는 점에서 다른 양상 조동사와 차이점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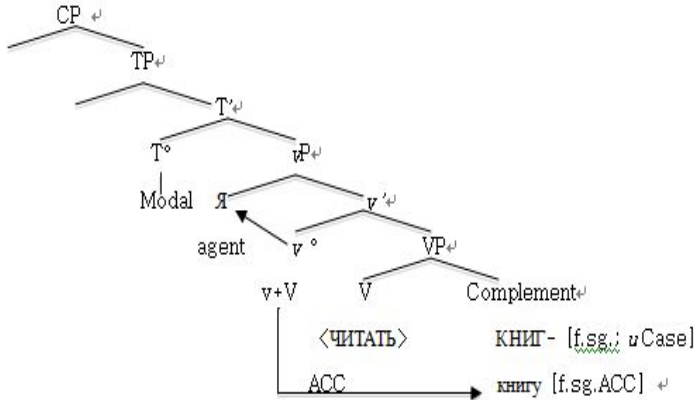
- (14) Мне можно вой ти?
 (15) Нам нужно доработать до двух часов ночи.
 (16) Нельзя разговаривать громко в библиотеке..
 (17) Вы не можете помочь мне делать домашнее задание?
 (18) Я должен под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служащих.

(14)~(16)에서 사용된 양상조동사들은 여격의 주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동사의 부정형과 함께 사용되고 있다. (17)~(18)의 양상조동사들은 주격의 주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주격주어에 대한 격부여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통사적 구조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난다.

3) 본고에서 양상조동사(modal auxiliaries)란 용어는 러시아어에 사용되는 여러가지 양상표현(modal expressions) 가운데, 부정형(infinitive)의 동사를 수반하며 여격의 의미상의 주어를 동반하는 양상의미의 3인칭, 중성, 단수 단어미 형태이거나, 주격의 주어를 동반하며 현재시제 인칭변화를 하거나 단어미형의 변화를 하는 양상술어를 의미한다.

- i) Мне нужно/надо купить хлеб.
 ii) Здесь можно курить.
 iii) Должно быть, он придет к нам в Москву.
 iv) Нина должна приготовить обед для специальных гостей.
 v) Я могу тебе показать все книги, которые родители мне купили.

(19) 양상조동사의 통사구조



위의 수형도에서 보듯이, 양상조동사가 사용된 구문의 통사구조는 양상조동사가 없는 구문의 통사구조와 동일하다. 대격과 능동자의 의미역을 부여하는 경동사구 little v의 위치와 기능, T°자리에 존재하는 EPP (Extended Projection Principle) 특성, 주어자리에 능동자의 의미역을 부여해야만 대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부르지오의 일반화 가설 등, 통사의 구조는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어의 최초생성 위치 역시 양상조동사와는 상관없이 하위의 동사구 내에서 최초로 결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cf. v/VPISH)⁴. 다시 말해, 의무적 양상조동사는 통제의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는 주장은 실효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양상조동사는 격 부여나 의미역을 부여할 수 없으며, 단지 최초의 통사적 파생과정에서의 결합위치는 위에서 보듯이 T°이다. T°는 인칭구문의 경우, [case: nom], [EPP], 그리고 [Tense(TNS)]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핵어이다. 인칭문과 무인칭문의 차이점은 주격 주어의 존재여부로 구별되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양상조동사 각각의 개별적 특성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должен*은 주격의 주어, *нужно*는 여격의 주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어휘적 특성에 따라 결정된다. Default 형태, 즉 3인칭, 중성, 단수 형태로 사용되는 양상술어와 주격단어미형으로 사용되는 양상조동

4) v/VPISH(v/VP Internal Subject Hypothesis): 통사적 파생 내에서 주어의 최초 생성 위치는 v/VP구조 안이라는 가설.

사들의 어휘구조가 다르기 때문이다.

- (20) a. Можно мне прой ти?
 b. [_{CP} можно (быть_{IMPERS}+([NP_{DAT}])) [_{TP} мне прой ти]]
- (21) a. Она должна закончить эту задачу до двух часов ночи.
 b. [_{CP} должна (быть_{PERS}+NP_{NOM}) [_{TP} ей закончить эту задачу до двух часов ночи]]
- (22) a. Могу ль я почитать эту газету?
 b. [_{CP} NP_{NOM}+могу [_{TP} мне почитать эту газету]]

(20)의 양상조동사 можно는 (21)-(22)의 양상조동사 должна/могу와는 술어구조가 다르다. можно는 여격의 구조와 함께 사용될 수 있으나, должна/могу는 주격의 술어로 사용될 경우 주격의 주어를 요구한다. 하지만 기저 구조에서의 주어 생성자리는 v/VP 안으로 동일하다.

앞서 언급한 것들을 요약하면, 양상조동사들은 의미역 준거(Theta-Criterion)와는 무관하기 때문에 의미역을 부여하지 못하며 논항구조(argument structure)와도 서로 관련이 없다 할 수 있다. 이들이 속해있는 절의 동사적 특성, 즉 인칭동사/무인칭동사의 구분에 의하여 부여되는 격이 달라진다. 다시 말해, 러시아어의 양상조동사들은 언어 보편적 시각에서 인상술어의 특성을 공유한다고 할 수 있다.

Default형 양상조동사는 무인칭 구문으로 사용되는 단어미형 형용사 default 형태와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 주어의 최초생성자리는 vP 지정어 자리이며, 인상 이동하여 T°로부터 격 부여를 받게 된다. 이때 무인칭문과 인칭문의 차이가 주격/여격의 주어를 결정하게 된다. 아래 예문을 양상조동사가 사용된 문장과 비교하라.

- (23) a. (мне) очень приятно с ва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b. (мне)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с вами познакомиться.
 c. [мне был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мне>.....познакомиться]]

2. 수동구문과 양상조동사

2.1 사상(diathesis)

사상(diathesis)은 동사의 어휘의미를 구조적으로 투사하여 통사적 과정을 결정하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Ружчик 1978, Babby 1998, Dimitrova-Vulchanova 1999, Падучева 2006) Babby(1998)는 러시아어 동사의 논항구조를 유형론(typology)적 시각으로 의미적 선택(S-selection)과 범주적 선택(C-selection)의 이분법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러시아어 동사의 의미역과 논항의 관계를 근거로 하여 동사를 6개의 하위범주로 분류하였다. 그 중 조동사의 의미적 선택(S-selection)과 범주적 선택(C-selection)과 관련하여 불특정성(unspecificity)의 자질을 특징으로 언급하였다. 본동사와 함께 사용되어야 하는 조동사는 특정한 의미역을 부여하지 못하고, 본동사의 어휘의미에서 결정되는 의미역을 통사적으로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상조동사는 불특정성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조동사 범주에 속하여 수동태 형성이 불가능하며, 조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본동사만이 수동화(passivization)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조동사는 항상 수동태 구조의 영역(scope) 밖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24) He may not come. (Lyons 1995:329)

- (25) a. Relative to what is known, it is possible that [he will not come].
 b. It is not permitted that [he come].
 c. There is some epistemically possible world in which [he comes].
 d. There is some deontically possible world in which [he comes]. (Lyons 1995:330)

(24)의 발화에서 양상조동사 may는 다양하게 해석된다. 하지만, 양상을 표현하는 조동사의 의미는 본동사가 가지는 어휘의미 밖의 영역에서 다루어진다는 것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 보편적 현상으로 독일어나 러시아어의 경우도 예외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다.

- (26) a. *weil der Kaviar essen gemut / gekonnt wurde
 since the caviar eat must-PART / can-PART was
 *'since the caviar was musted/ canned to eat'
 'since somebody had to eat/ can the caviar'
- b. weil der Kaviar gegessen werden mu/darf/soll
 since [the caviar]-NOM eaten become must/may/should
 'since the caviar must/may/should be eaten'
 (Wurmbrand 1999:603)
- (27) a. К рассвету эвакуация должна быть закончена..
 b. Если он хочет яркую коммуникацию, нужно быть
 открытым к рискованным решениям и экспериментам.

2.2 인상술어로서의 양상조동사

양상조동사가 수동화 될 수 없다는 사실은 언어 보편적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양상조동사가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Wurmbrand(1999)는 독일어의 수동태는 타동사나 비능격동사(unergative)에서 모두 형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통사적 파생과정에서 주어역을 부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수동태의 가능여부를 판별하였다. 수동태가 불가능한 동사는 비대격(unaccusative) 동사로 주어 역할을 할당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현상은 양상조동사가 의미역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

- (28) a. Er wurde am Tatort gesehen (transitive)
 He was at-the-crime-scene seen
 'He was seen at the crime scene'
- b. Es wurde getanzt (unergative)
 it was danced
 *'It was danced'
- c. *Es wurde (rechtzeitig) angekommen (unaccusative)
 It was (on time) arrived
 *'It was arrived'

- d. *Es wurde (zu)tanzen geschienen (raising predicate)
 It was (to) dance seemed
 *'It was seemed to dance' (Wurmbrand 1999:604)

상기한 바와 같이, 기저구조(underlying structure)에서 외부논항을 갖는 동사들, 즉 부르시오의 일반화 가설에 준거한 타동사나 능동자의 주어역을 갖는 비능격 동사는 기저구조에서 주어 역할을 부여받아 수동태가 가능하지만, 비대격 동사나 양상조동사는 기저구조에서 주어 역할을 할당받지 못하여 수동태 형성이 불가능하다. 다시 말해, 양상조동사는 기저구조에서 외부논항이 결여된 비대격 동사와 동일한 문장구조를 가지며, 통제술어가 아닌 인상술어의 특징을 갖는다.

- (29) a. The biscuits *seem* to have been finished by Paul.
 b. *The biscuits *tried/decided* to be finished by Paul.
 c. The biscuits *may* be finished by Paul. (Warner 1993)

위의 (29a)는 인상술어 *seem*이 보충어와 함께 사용되어 내포문의 주어가 인상 이동하여 생성된 정문이며, (29b)는 통제술어 *try/decide*가 내포문의 주어가 주절(matrix verb)의 위치에 인상 이동되어 생성된 비문이다. 통제술어의 주어는 능동성(agentivity)을 가진 활성체 주어가 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비문이 된다. Perlmutter(1970)는 인상술어와 통제술어를 구분은 주어의 활성성(animacy)이라고 단언하였으며, 인상과 통제의 실험적 연구를 통해 주어의 활성성을 입증한 Becker(2005)의 연구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이에 근거하여 양상조동사 *may*가 사용된 예문 (29c)를 살펴보면, (29a)에서 사용된 인상술어와 마찬가지로 정문의 문장을 생성해낸다. 특히, 비활성체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사용되어 정문을 생성해 내는 것을 고려해 본다면, 양상조동사는 통제술어이기 보다는 인상술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3. 무인칭구문에서의 양상조동사

무인칭문(impersonal sentence, безличные предложения)이란 주절내에 주격의 주어(主格)가 존재하지 않는 이유로, 주어-술어의 일치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default 형태의 술어를 사용하는 문장을 일컫는다. (Виноградов 1947, Шведова 1982, Апресян 2001) 부정형(infinitive) 술어가 사용되는 문장도 무인칭문에 속하며, 여격 명사가 의미상의 주어 역할을 한다. 부정형과 함께 사용된 여격명사로의 격부여는 다양한 시각에서 다루어져 왔지만, 일반적으로 구조적 격으로 인정되고 있다 (Wierzbicka 1966, Comrie 1974, Kondrashova 1993, Schoorlemmer 1994, Franks 1995, Franks and Pereltsvaig 2004, Pereltsvaig 2006)

3.1 여격 주어

부정형 동사와 함께 사용된 여격의 명사는 주격의 주어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어의 역할을 한다. 예를 들자면, PRO를 통제하거나, 소절(small clause)에서 지배-결속관계를 유지하거나, 또는 의미상의 지시 관계를 형성하는 등의 주격 주어(主格)가 맡은 거의 모든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여격의 주어는 양상조동사와 함께 사용될 때, 부정형의 기저구조에서 생성되어 상위의 투사구로 인상 이동한다고 할 수 있다. v/VPISH에 의해 부정형의 동사구 내에서 생성된 여격의 주어는 인상이동이 가능하지만, 주어가 아닌 여격의 명사는 인상이동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인상이동을 허용하지 않는 여격의 명사는 도치명사(I-nominals)라 부른다.(Moore and Perlmutter 2000) 여격주어의 통사적 진실성을 가리는 문제는 본 연구의 주제에서 벗어나는 관계로 인상이동과 관련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우선 부정형 술어가 주절에 사용된 경우, 주어는 여격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리고 소절에서 PRO의 통제를 받는 대명사가 여격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30) Nam ne minovat' gibeli.
us.DAT NEG avoid.INF disaster.GEN
'It is not for us to avoid disaster.' (Timberlake 2004:8)

- (31) Maša ugovorila Vanju
 Maša.F.NOM persuaded.F Vanja.M.ACC
 [PRO prigotovit' obed odnomu].
 prepare.INF lunch alone.M.DAT
 'Maša persuaded Vanja to cook lunch by himself.'
(Franks 1995:235)

(30)에서 보듯이, 부정형 술어가 주절로 사용된 구문은 여격의 명사를 주어로 선택하며 구조적 격을 부여한다. 또한 (31)은 ECM 구문에서 나타나는 소절의 격이 여격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부정형의 여격주어 PRO가 *odnomu*의 선행사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문을 살펴보자.

- (32) а. Они начинают работать одни.
 б. ... начинать [они работают одни]
- (33) а. Им не начать работать одним.
 б. ... не начать [им работать одним]

위의 예문은 인상술어 *начинать/начать*의 기저구조에서 각각의 주격 주어와 여격 주어가 인상이동 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통사적 파생은 양상 조동사가 사용된 문장에서도 동일한 통사적 구조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여격 주어의 초기 결합과 격 부여는 인상술어가 아닌 부정형 동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34) а. √ Мне нужно закончить эту работу одному/самому.
 б. ... нужно [мне закончить эту работу одному/самому]
- (35) а. √ Можно, [ср Я прой ду...?] → (да) можно...
 (да) вы можете прой ти...
 б. √ Можно [тр мне прой ти...?] → (да) вам можно...
- (36) а. √ Студентам нужна эта книга.
 б. *Студенты оказались нужными/нужной эта книга.
 с. √ Оказалось, что студентам нужна эта книга.

위의 보기 (36)은 부정형과 사용되지 않은 여격명사는 인상술어와 함께 사용되더라도 인상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격주어와 도치된 여격명사와의 차이점을 현저히 보여준다.⁵⁾ 결론적으로, 양상조동사와 사용된 여격주어는 양상조동사의 주어역을 받아 형성된 주어가 아니라 기저구조에서 부정형 동사의 논항구조에 의하여 형성된 구조적 격이라는 것이 간접적으로 입증되었다 할 수 있다. 양상조동사가 주어역을 부여하지 못하고, 하위구조의 동사구에서 생성된 여격의 주어가 인상이동되어 주절의 주어가 된다는 사실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여러모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3.2 양상조동사의 생략

아래의 예문은 양상조동사가 생략되어 사용되는 경우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양상조동사의 부재는 동사의 부정형으로 보완되어 의미상의 차이점은 크게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부정형의 술어가 양상조동사의 의미를 일부 대체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아래의 예문을 참조하라.

(37) a. Не разговари́вать здесь так громко!

b. Нельзя разговари́вать здесь громко!

(38) a. Что мне делать?

b. Что мне нужно делать?

부정형 술어가 사용된 문장에서, 부정형 동사는 여러 가지 의미의 양상조동사의 의미를 표현한다. 인칭문 또는 무인칭문의 여부와 상관없이 양상조동사의 기능을 대체한다. 완료상 동사의 부정형은 행위의 필요성(necessity)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39) a. Заказать тебе такси?

→ Да, уже надо нужно заказывать, а то я опаздываю.

→ Нет, не надо, я успею на автобусе.

5) Moore and Perlmutter (2000)는 여격 주어가 아닌 여격의 명사를 I-Nominals (inversion-nominals)이라 언급하였다.

- Закажи, пожалуйста ста...
- b. Вам позвонить завтра?
- Позвоните, пожалуйста ста...
- Завтра можно мне позвонить, я буду свободен.

상기한 바와 같이, 러시아어의 부정형 술어문은 양상(modality)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의미와는 상관없이 부정형 술어는 여격 주어의 사용을 허가한다. 결국, 양상조동사의 사용과는 상관없이 여격의 주어가 생성된다는 직접적인 논증이 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양상조동사가 주어의 의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것도 동시에 입증된 것이다.

4. There/허사 it 구문

러시아어의 양상조동사 구문을 영어의 인상구문과 비교하여 살펴보자. 영어의 술어 *be likely*, *seem*, *appear*, *happen* 등은 내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되기 위하여 인상 이동을 하는 인상 술어이다. 양상조동사(modals) 역시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갖는 인상술어이다. 다음의 예문을 보라.

- (40) a. John seems to be a good man.
 b. It seems that John is a good man.
 c. *e* seems [John to be a good man].

(40a)는 (40b)에서 파생된 인상구문이다. (40b)의 내포문의 주어 John이 주절의 주어가 되기 위하여 인상이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가 (40a)이다. (40a)와 (40b)의 기저구조는 (40c)이며, 인상술어 *seem*이 주어자리에 의미역이나 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 (41) a. It is very likely that Mary has left already.
 b. That Mary has left already is likely.
 c. *e* is likely [that Mary has left already].

위의 (41)은 내포문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로 인상이동을 한 것이 아니라, CP절 전체가 인상이동을 한 경우이다. 이는 허사(expletive) 자리를 CP절이 이동하여 문법적 문장을 형성하였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40)과 (41)에서 허사 *it*이 차지하는 자리는 의미역이 부과되지 않는 자리이며, 단지 *it*이 주어자리를 채워주는(place-holder) 역할만을 수행할 뿐이다. 그렇다면, (40c)와 (41c)의 기저구조에서 인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Rothstein(2001)은 인상이동과 관련된 이러한 이유를 격 부여의 부재와 한 개의 의미역이라 설명한다. [John to be a man]의 기저구조에서 John은 하나의 의미역을 부여받지만, 격은 부재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인상이동을 통하여 주격을 부여받게 되며, 주절의 주어로 사용되어진다. 같은 맥락에서 CP [that Mary has left already]는 의미역과 격이 부재한 절이다. 그러므로 인상 이동이 가능하며, CP 전체의 인상이 아닌 허사 *it*의 대용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 (42) a. It seems that there is an ogre in the forest.
 b. There seems to be an ogre in the forest.
 c. *e* seems [there to be an ogre in the forest].
- (43) There must be an ogre in the forest.

There 삽입구문도 CP절과 마찬가지로 의미역과 격부여가 부재하며, 인상이동을 통하여 주절의 주어자리에 사용된다. 양상조동사는 위의 (43)에서처럼 인상술어로서 사용된다. 러시아어의 경우를 살펴보자.

- (44) a. Невозможно, что он приедет к нам в гости.
 b. Он не может приехать к нам в гости.
 c. *e* не может [т_р ему приехать к нам в гости]
- (45) a. Можно, [с_р я пересяду туда]?
 b. *e* можно [т_р ему пересесть туда]?
 → Вам можно...
 → Вы можете пересесть туда.

(44a)는 양상표현이 보문절 CP 밖의 영역에서 표현되고 있으며, 주절의

술어가 default형으로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양상표현이 술어로 사용될 때, 의미역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결과이다. 그러므로 (45) 역시, CP절이 양상조동사 범위 내에서 해석되는 경우를 표현한 것이며, (45b)는 양상구문의 기저 구조로서, 부정형 동사의 내부논항을 형성하는 여격명사가 인상 이동하여, 주격의 주어로 사용되는 경우를 명확히 보여준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러시아어의 양상조동사에 대한 통사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양상조동사는 통사적으로 인상구문의 구조이며, 논리적 근거로는 수동태구문과 비대격 동사, 그리고 인상동사가 취하는 통사적 행태가 양상조동사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보았다. 먼저 수동태와 사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양상조동사는 GB(Government and Binding)이론에서 보면, 의미적 선택과 범주적 선택 모두 부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양상조동사는 논항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부정형의 보충어와 결합하여 사용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양상조동사가 의미역 부여를 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하며, 기저구조에서 생성되어 인상 이동 된다는 것을 명확히 증명해 주는 사실이다. 이러한 구조적 측면뿐만 아니라, 양상을 나타내는 조동사들은 의미적으로 논항구조 밖에서 사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논항구조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부정형 술어가 주절의 동사로 사용된 문장구조에서는 여격 주어가 사용되는데, 이러한 여격 주어의 사용은 양상조동사와 관련이 없으며, 기저구조에서 인상된 주어라 할 수 있다. 또한 양상조동사가 생략되어 사용되어도, 부정형 자체가 양상의 의미를 표현하기 때문에 부정형과 함께 사용된 여격명사의 최초 생성 위치나 생성 매커니즘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격 주어의 존재는 양상조동사와 관련이 없으며, 인상 이동된 결과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상이동을 초래하는 조건은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은 의미역 준거(Theta-Criterion)에 의해 하나씩만 주어지는 의

미역과 부여받지 않은 격의 결과이다. 격의 부재는 비해석성 격자질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인상이동을 초래하며, 그러한 이유로 상승 이동하여 주절의 주어 가 되는 것이다. 허사 it/there의 삽입이나 that절의 인상은 격 부여와 격 자질의 유무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자명하다.

참 고 문 헌

- Babby, L. H. 「Voice and diathesis in Slavic」 Position paper at the Comparative Slavic Morphosyntax conference in Bloomington, Indiana, 1998
- Becker, M. 「Learning verbs without arguments: The problem of raising verbs」 『Journal of psycholinguistic research』 34(2), pp.173-199, 2005
- Becker, M. 「Animacy, expletives, and the learning of the raising-control distinction」 『Generative approaches to language acquisition North America』 2, pp.12-20, 2007
- Borsley, R. D. 『Modern phrase structure grammar』 Blackwell, 1996
- Burzio, L. 『Italian syntax: A government-binding approach』 Springer, 1986
- Chomsky, N.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1957
- Chomsky, N.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1981
- Chomsky, N. 『Syntactic structures』 De Gruyter, Mouton, 2002
- Comrie, B. 「Impersonal subjects in Russian」 『Foundations of Language』 12(1), pp.103-115, 1974
- Culicover, P. W. 『Principles and parameters: An introduction to syntactic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97
- Dimitrova-Vulchanova, M. 『Verb semantics, diathesis and aspect』 Lincom, Europa, 1999
- Franks, S. 『Parameters of Slavic morphosyntax』 Oxford University Press, USA, 1995
- Franks, S. and A. Pereltsvaig. 「Functional categories in the nominal domain」 『Proceedings of FASL』 Citeseer, 2004
- Kondrashova, N. 「Agreement and dative subjects in Russian」 Avrutin, Franks, and Progovac (eds.) pp.255-285, 1993
- Lasnik, H. and M. Saito. 「On the subject of infinitives」 27th regional meeting of the Chicago Linguistic Society, Chicago: Chicago

- Linguistic Society, 1991
- Lyons, J. 『Linguistic semantics: An introdu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5
- Moore, J. and D. M. Perlmutter. 「What does it take to be a dative subject」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18(2), pp.373-416, 2000
- Palmer, F. R. 『Mood and mod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Pereltsvaig, A. 「Small nominal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24(2), pp.433-500, 2006
- Perlmutter, D. M. 「The two verbs begin」 『Readings in English transformational grammar』 . R. A. J. a. P. S. Rosenbaum. Waltham, Mass, Ginn, pp.107-119, 1970
- Portner, P. 『Modality』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2009
- Roberts, I. G. 「Agreement parameters and the development of English modal auxiliaries」 『Natural Language & Linguistic Theory』 3(1), pp.21-58, 1985
- Ross, J. R. 「Auxiliaries as main verbs」 『Studies in philosophical linguistics』 1(1), pp.77-102, 1969
- Rothstein, S. D. 『Predicates and their subjects』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1
- Schoorlemmer, M. 「Dative subjects in Russian」 『Formal Approaches to Slavic Linguistics』 , 1994
- Timberlake, A. 『A reference grammar of Russia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4
- Warner, A. 『English auxiliaries: Structure and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93
- Wierzbicka, A. 「Slavjanskij dativus cum infinitivo」 『International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and Poetics』 10, pp.82-102, 1966
- Wurmbrand, S. 「Modal verbs must be raising verbs」 West Coast Conference on Formal Linguistics (WCCFL), Citeseer, 1999
- Zubizarreta, M. L. 『On the Relationship of the Lexicon to Syntax』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1982

Апресян, Ю.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в контексте современной лингвистики』 АМ Пешковский, 『Русский синтаксис в научном освещении』. М.: Языки славянской культуры. 2001

Виноградов, В. В. 『Русский язык』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чебно-педагогическое издательство Министерства просвещения РСФСР, 1947

Падучева, Е. 「Диатеза, генитив отрицания, наблюдатель」 『Проблемы типологии и общей лингвистики』 Международная конференция, посвященная 100-летию со дня рождения проф. АА Холодовича. Материалы СПб.: «Нестор-История», 196 с. 2006

Ружицка, Р. 「Несколько соображений о теоретических понятиях «залог» и «диатеза»」 『Проблемы теории грамматического залога』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с.16-22, 1978

Шведова, Н. Ю. 『Рус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Издательство, Наука, 1982

강명윤, 『춤스키 언어학 사전』 한신문화사, 1998

Abstract

A Syntactic Analysis on Russian Raising Predicates: Focusing on Modal Auxiliaries

Hyongsup Kim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yntactic structure of the Russian modal predicates from a point of view that the Russian modals are raising predicates. Unlike the linguistic tradition that epistemic modals have raising structures, while deontic modals have control structures, this research concludes that the Russian modal predicates, regardless of epistemic or deontic modality, are of the structure of raising.

Raising of the Russian modal predicates is proved by the following factors: i) unavailability of passivization as language-universals like in German and English, ii) the issues of scope of modal expressions, iii) subject in dative in impersonal sentences irrespective of presence of modals, iv) lack of the use of modal predicates in infinitival/impersonal sentences, and v) there/it-insertion in English, which realizes as zero-place holder in Russian, such as *начинает смеркаться*.

Dative NP of infinitival sentences is structurally case-marked by verbal infinitive and the base-generated dative NP moves up to spec of TP. Modals, which do not theta-mark, merge on T°. Raising is triggered by the only one theta role and no assigned case. That is, raising occurs for modals to acquire subject theta-role from the underlying verbal infinitives.

Key-words: Raising(인상), Control(통제), Modal(양상조동사), Theta-role(의미역), Theta-Criterion(의미역준거), Case(격), Dative(여격)

E-mail: kimhyoungsup@hotmail.com

논문심사일정

투고일자 : 2012. 11. 13

심사일자 : 2012. 12. 09

게재일자 : 2012. 12. 30